

“텃밭 표심 잡아라”...민주당 당권 주자들 호남 공략 가속

송영길·우원식·홍영표 3파전 구도
 송, 5박6일 광주·전남 표밭 다져
 우, 단체장·지방의원·당원 접촉
 홍, 광주형일자리 일등공신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주자들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호남 표심 잡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여권의 텃밭이자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고, 당원 수도 많아 '호남의 표심'이 당권 경쟁의 판도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총 지휘하는 차기 당 대표는 오는 5월 9일 전당대회(예정)에서 확정된다. 현재 송영길(5선)·우원식(4선)·홍영표(4선) 의원이 일찌감치 3파전 구도를 형성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관리당원 100만 여명 중 호남이 30만여명에 달해 당권 주자들의 호남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고흥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고향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자신하고 있고, '광주형일자리' 탄생의 일등공신인 홍 의원이 광주와의 인연을 앞세워 지지세를 불리고 있다. 또 우원식은 인연은 민평관계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넓히고 있다. 이번이 세 번 째 당권 도전인 송 의원은 인지도와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홍 의원은 '민주주의 4.0' 모임을 중심으로 탄탄한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하고 있다. 또 우 의원은 더좋은 미래(더미래) 모임에서 활동하며 당내 진보·개혁성향 의원들과 폭넓게 교류해온 점을 내세우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광주

와 전남 모든 지역을 순회하며 텃밭을 다졌다. 송 의원은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공공의료원 설립,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전 지역을 도는 강행군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전남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호남 당심에 적극 구애를 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찾아 단체장, 지방의원, 당원을 만났다. 우 의원은 초대 을지로위원장, 더좋은미래(더미래) 모임 활동 등으로 당내 폭넓은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홍 의원은 원 특위를 맡아 각 지역에 접점을 넓힌 점을 부각하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홍 의원도 지난달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단체와 만나고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보폭을 넓혔다. 탄탄한 친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홍 의원은 원내 대표 시절 우여곡절 끝에 안착한 '광주형 일자리'를 막후 지원하고, 막바지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에 직접 광주까지 내려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사실상 광주형일자리 완성에 큰 기여를 한 점을 내세워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고 선거 이후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호남 공략이 본격화 하면서 지역내 지지층이 미세하게 결집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 세 후보가 지역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어 '물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후보들 간의 지지층이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당권 주자들과 지역 정치권의 인연이 깊어 특정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부산을 찾아 광주송정~부전역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 '영호남 상생발전 특별선언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두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예전처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지났던 지역 정치권의 지지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갑석·강기정,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

부산서 영호남 상생발전 선언식
 남해안 고속철도 등 동반성장 선언
 부전역서 김영춘 후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영호남 상생을 위한 광주송정~부전역 남해안 고속철도 완공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지원했다. 송 의원과 강 전 수석은 21일 부산 부산진구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영호남 상생발전 특별선언식'에 참석해 선거 승리와 두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영호남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문은 영호남상생특위와 광주·부산 시당위원장 공동명의로 채택됐다. 김영춘 후보와 김두관 영호남상생특위 공동위원장,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산의 경제를 되살리고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선거"라며 "김영춘 후보가 수도권 중심의 국가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앞장서 이끌어 갈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동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지원, 광주송정~부전역 남해안 고속철도 완공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통한 동반성장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착공과 성공적 개항을 위한 지원활동 ▲균형발전정책의 선진적 모델인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성공 기원 등 4개 항의 활동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공동선언문 채택을 끝낸 이들은 부전역으로 이동해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김영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특별선언식에서 "광주 송정에서 부산 부전까지 기차로 이동하면 6시간 이상 소요되고, 5시간 걸리는 무궁화호 열차는 하루에 한 편 뿐"이라며 "부산~광주 2시간 시대를 열 고속철도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해안 고속철도를 통해 영호남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단 없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이 일궈낸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작된 균형발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차기 대권 후보 지지모임 잇따라 출범...본격 세 대결 예고

이재명 기본국가포럼 '개국' 토론회
 이낙연 '신복지2030포럼' 준비모임
 정세균 '우정광주포럼' 지지세 규합

여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들의 지지세력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세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활발한 지지세력이 꾸려지고 있는 차기 대권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다. 이 지사의 지지모임인 기본국가포럼 '개국'이 지난 12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본 소득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희망22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상임대표에는 김진우 전 한국JC 중앙회장이 맡았다. 포럼에는 광주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경제계, 법조계, 학계, 체육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5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희망22포럼은

각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포럼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에는 이 지사 지지 모임인 '희망사다리 포럼'도 출범했다. 이밖에 이 지사의 지지모임으로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광주본부와 '포럼 기본국가로', '희망포럼', '청년포럼', '서민의벗 더불어K', '청정포럼', (가칭) 기공세상(기본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 등이 결성됐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제도를 지지하는 가칭 '신복지2030포럼'도 지난달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발기인 대회를 서두르고 있다. 이 단체는 이달 중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체에는 70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해온 SNS-온라인 조직인 '좋은 인연'과 500여 명의 관리당원·선거인단이 참여 중인 정책개발 모임 '호남미래개발포럼'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체는 신복지 제도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무작업을 이끄는 김동찬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온·오프라인 조직을 통한 포럼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광주를 대표할 만한 각계 인물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가칭 '우정광주포럼'도 지지세 규합에 나섰다. '우리가 정세균이다'의 약자인 우정(友丁) 팬클럽을 자처하는 이들이 이달 중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정 총리는 아직 총리 신봉이라는 점 때문에 대선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정 총리를 지지하는 팬클럽과 SNS를 통해 세력 규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선 김두관 의원의 지지모임인 노무현정신계승연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도 각각 출범했다. 또한, 광주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면 80년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모임도 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4월 재보선 이후 여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차기 유력 대권 지지모임 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지지모임 간 연대와 통합 등도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